

‘이념’에서 ‘현실’로 변신해온 사회과학 출판사들

1980년대 탄압 거쳐 1990년대 다각화·대중화 꾀해

1970년대 중반 이후 운동권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많은 사회과학출판사들이 생겨났다. 이들 출판사들은 운동권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격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이들 출판사들은 정체성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그 뒤 그들은 다각화·대중화를 시도하면서 한국 출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사, 풀빛, 돌베개, 사계절, 거름, 이론과실천, 논장... 386세 대라면 이 출판사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름들과 함께 1980년대 대학시절을 보냈고, 그 이름을 대할 때마다 가슴을 조이고 때론 흥분으로 몸을 떨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자본주의화와 군사독재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학생운동권과 민중운동권 내부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1979년 YH사건, 10·26 사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은 본격적인 반과쇼투쟁으로 확산됐다. 사회주의 사상은 다양한 논쟁과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운동권 내부의 확고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앞에 열거한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생겨난 것도 사회운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사회과학 출판사들은 학생운동과 민중운동권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갔다. 사회운동과 궤를 같이 해온 만큼 이들 출판사들이 독재하에 탄압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출판물의 판금은 예삿일이었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으며 출판사 대표가 구속 당하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학생·사회운동권의 이론적 요구에 맞췄

문학출판사를 제외하고 본격적인 사회과학출판사로 비교적 일찍 자리잡은 출판사는 청년사다. 청년사는 1976년 《나를 운디드 니에 물어주오》《암태도 조각쟁이》등을 시작으로 사회과학출판사로 서서히 자리매김했다. 1980년대 청년사는 노동운동 관련 서적과 중국문학사, 중국철학사 등 주로 중국 관련 서적을 펴냈다. 1980년대를 지나오면서 대표가 두 번이나 구

속되는 일도 겪었다. 그 가운데 한번은 노태우 정권 때였는데, 북한에서 펴낸 《조선전사》 영인본을 제작해 학자들에게 판매했다가 구속된 사건이었다.

1979년 출발한 풀빛은 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며 1980년대 활발한 출판을 했다. 무크지 《현실과 전망》《문학예술운동》등을 매개로 해 이른바 현장문학의 활발한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 <풀빛 판화 시선>에 속해 있던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도 풀빛이 거둔 성과였다. 풀빛은 다른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서적을 출판하면서 《한국민중사》 등 한국역사에 관한 책들도 활발히 펴냈다. 풀빛은 또 황석영이 쓴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광주항쟁 사료집》을 펴내면서 한국사회에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돌베개도 1979년부터 출판을 시작했다. 돌베개는 초기에 《변증법적 상상력》이나 《새로운 사회학》 등 비판이론이나 남미 종속이론 등을 주로 출판했다. 당시만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을 펴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돌베개는 우리 역사에 관심을 두고 한국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을 담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을 펴낸다. 돌베개의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은, 출판 당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 대학가에서 스테디셀러가 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전3권)》를 펴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한다.

사계절출판사는 《혁명이나 개혁이나》를 펴내면서 1982년 출판계에 뛰어 들었다. 그 뒤로 <사계절사회과학신서> 50여권, <사계절교양문고> 40여권을 출간했다. 무엇보다 사계절을 독자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킨 건 홍명희의 《임격정(林巨正)(전10권)》이다. 홍명희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원고를 근거로 일일이 이본들과 대조

를 거친 후 출판한 것이다. 그러나 출판되자마자 이 책은 금서로 낙인찍혔고 급기야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극심한 정체성 혼란 겪기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운동 진영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출판사들도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했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수많은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론과 실천과 논쟁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정체성 혼란이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과 수배를 반복해야 했던 이론과 실천 김대경 대표는 1986년 회사를 세우고 마르크스의 《자본》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등 마르크스주의, 인문학, 예술이론서들을 꾸준히 펴냈다. 그러나 1990년대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찾아왔다. 1990년대에 그는 다른 출판사(친구)의 이름으로 대중서들을 펴내 꽤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30대 후반에 맞은 정체성의 혼란은 금전적 파행을 가져왔고 급기야 부도라는 절망감만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는 1996년 하반기 겨우 일어섰다.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마라》로 또 한번 성공을 거두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IMF로 주저앉고 만다. 이론과 실천이 다시 본격적인 출판을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책을 고급화해 소수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책들을 펴냈지만 그리 신통치 않았다.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 것이 얼마전에 펴낸 《알도와 떠도는 사원(1~2)》이다.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독자들도 많이 찾는 편이다.

다른 사회과학 출판사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한 논장은 《한국현대사의 이데올로기》를 첫 책으로 <문예이론총서> <경제이론총서> 등 당시 학생운동 진영이 필요로 하는 책들을 꾸준히 펴냈다. 그러나 1989년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으로 박강희 대표가 구속됐고, 6개월 뒤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땐 이미 1990년대였다. 더 이상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 이론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박대표는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 그에게 아동물은 안정된 시장으로 보였고 그는 곧 아동물 출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출판사들이 굳게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동물 전문 유통업체인 서당이었다. 한때 전국에 1백여개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1백여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서당도 IMF를 맞아 경영권을 넘겨줘야 했다. 박대표는 지금도 1980년대에 출판하지 않은 원고들을 갖고 있다. 그 원고들을 버려야 할 때 가장 속이 상한다고 한다.

1980년대 출판정신 새로운 분야에서 발현돼

그래도 1970년대 말 1980년 초 출발한 출판사들은 비교적 1990년대라는 상황에 잘 대응해온 편이다.

청년사는 1990년대 초반 그동안 출판했던 학술서적의 대중화를 꾀했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시리즈다. 또한 청년사는 이 대중화의 한 축으로 진보적 시각의 아동물을 펴내는 데도 힘을 쏟고 있고, 386세대 학부모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둘베개의 경우는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으로 변신에 성공한 경우다. 1990년대 초반 <답사여행의 길잡이>를 내 당시 인문학적 여행서가 유행하던 분위기에 힘입어 성공을 거뒀다. 문화사를 테마별로 나눠 조명하는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의 인물을 평전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준비중이다. 2년 전부터는 둘베개어린이를 만들어 국내창작물을 펴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풀빛은 최근 《자본론의 세계》를 펴낸 것처럼 사회과학 서적을 펴내면서 한편으로 아동물도 활발히 펴내고 있다. 또한 1990년 접어들어 풀빛미디어를 만들어 이미지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영상 등 매체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영화 관련 이론서적이거나 어학관련 서적이 풀빛 미디어에서 펴내는 책들이다.

1980년대 사회과학 출판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출판사를 꼽으려면 사계절 출판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89년부터 사계절출판사는 1980년대 사계절출판사를 이끌었던 정신을 유지하면서 영역의 다각화와 내용의 대중화라는 모토를 내걸고 변신을 시도했다. 《이야기 파라독스》가 그 첫 시도였고, 이것이 위기철의 《반갑다, 논리아》라는 초베스트셀러로 이어졌다. 위기철의 <논리아 놀자> 시리즈는 새로운 입시제도에서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뒤이어 펴낸 《역사신문》 《세계사신문》 등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기획출판에서도 잇따른 성공을 거뒀다. 《남북어린이가 함께 보는 한국의 동화》를 펴내면서 아동물로도 영역을 확대해갔다.

《러시아 혁명사》 《바로 보는 우리 역사》로 1980년대에 잘 알려진 거름은 그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 1990년 중반 《경제기사는 돈이다》를 시작으로 줄곧 경제경영서만을 펴내고 있다.

이들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대부분이 아동물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출판사들의 아동물 시장 진출에 대해 사계절출판사 마케팅부 정한성 부장은 “아동물 시장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들 출판사들의 책을 읽었던 이른바 386세대들이 이제는 학부모가 됐다는 사실도 이들 출판사에게는 안정적인 독자층을 확보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둘베개 한철희 대표는 “1980년대만큼 우수한 인력이 출판계에 유입된 적은 없었다”고 회고하면서 “이런 우수한 인력이 1980년대 치열했던 출판정신을 아동물에 쏟아놓으면서 아동물의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존을 위해 변신을 했지만 1980년대 이들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지켜왔던 치열한 출판정신은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발현되고 있다. — 김장근 기자